

## 한층 더 크게 자랐으면



별사탕을 입에 던져 넣는다. 부드러운 단맛이 퍼진다. 점점 녹아서 동그래진다. 이 별사탕처럼 우리도 모난 마음을 동글게 다듬어야 합니다. 그런데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 동그래지지만 작아집니다. 한층 더 큰 동그라미를 만들 수 없을까요?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봅시다.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그러한 경험들이 각진 부분 사이를 메꿔줘서 크고 예쁜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. 각진 마음은 고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의 소중한 개성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까요?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## 한층 더 크게 자랐으면



별사탕을 입에 던져 넣는다. 부드러운 단맛이 퍼진다. 점점 녹아서 동그래진다. 이 별사탕처럼 우리도 모난 마음을 동글게 다듬어야 합니다. 그런데 모난 부분을 깎아내면 동그래지지만 작아집니다. 한층 더 큰 동그라미를 만들 수 없을까요?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봅시다.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그러한 경험들이 각진 부분 사이를 메꿔줘서 크고 예쁜 동그라미가 될 것입니다. 각진 마음은 고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의 소중한 개성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까요?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 
하지 않으려 해도 나타난다.

( 계시록 · 지도말씀 =1893.3.15)

하는 일이 다 호전되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계속되면 신경이 쓰이고 답답하기도 합니다. 마음의 자유를 허락받



은 우리지만,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인간은 신의 품에 안겨 살고 있습니다. 자신을 넘은 부분까지 포함한 ‘자신’의 마음 쏙쏙이에 따라 신님께서 누구나 구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실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.

<https://www.tenrikyo.or.jp/kor/>



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 
하지 않으려 해도 나타난다.

( 계시록 · 지도말씀 =1893.3.15)

하는 일이 다 호전되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계속되면 신경이 쓰이고 답답하기도 합니다. 마음의 자유를 허락받



은 우리지만,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인간은 신의 품에 안겨 살고 있습니다. 자신을 넘은 부분까지 포함한 ‘자신’의 마음 쏙쏙이에 따라 신님께서 누구나 구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실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.

<https://www.tenrikyo.or.jp/kor/>

